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
부리는 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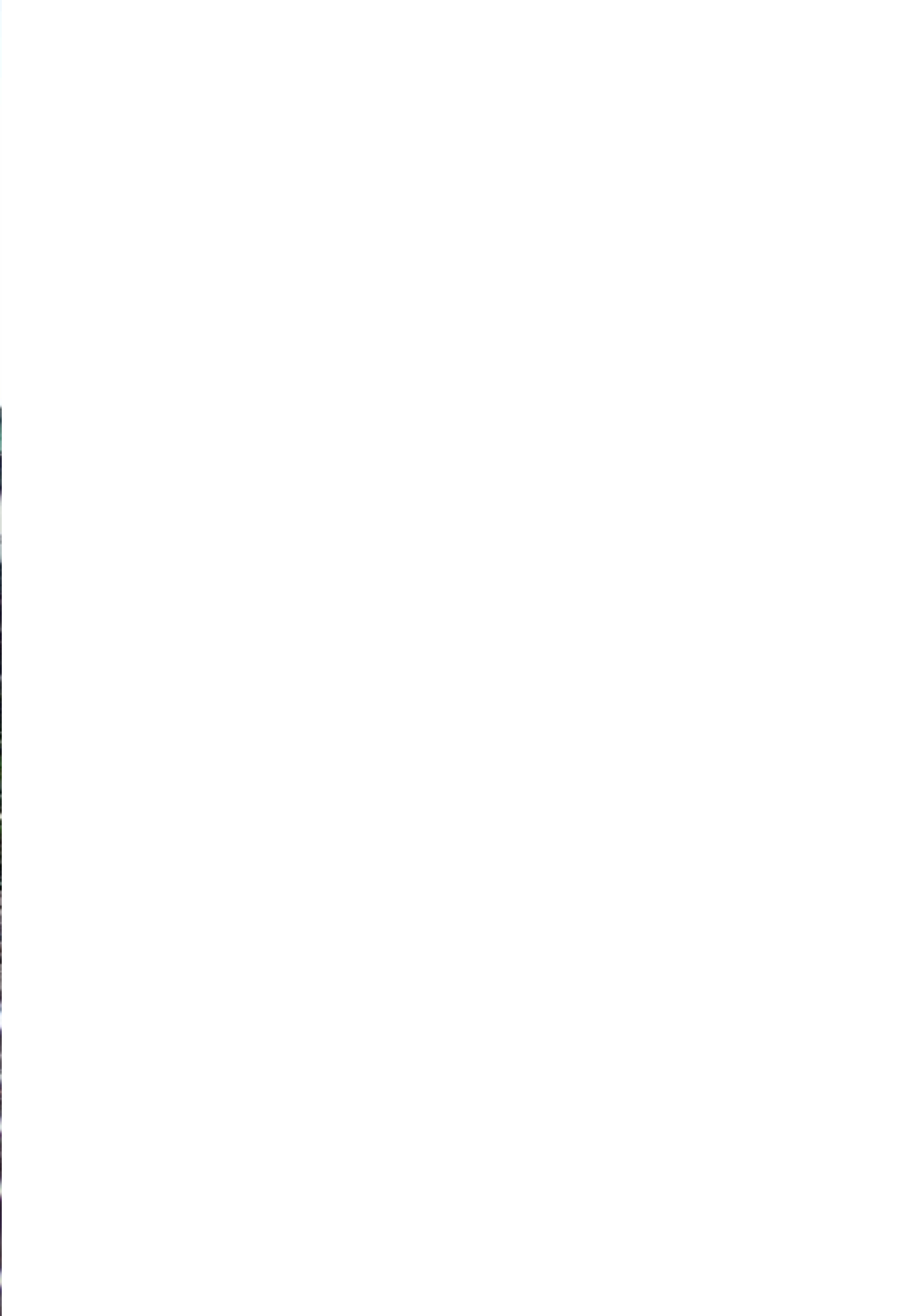
2014

계단마실









PART 1 계단마실단_인터뷰와 평가회

계단마실단원, 너를 얘기해 봐 12
계단마실단의 계단마실 평가회 22

PART 2 INTERVIEW

01 “마을에 힘든 점이 있을 때 이를 푸는 방식은 늘
사람들이고, ‘협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리 인터뷰 30

02 “이곳은 멋있는 사람이 쟁이다.
모두 각각의 고유한 멋이 유지되는 동네다.”
짱돌 인터뷰 34

03 “애들을 위해 뭘 만들고 준비한다기보다는
어른 넷이 만나서, 마치 애들이 레고 조립하듯이
같이 논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당나귀 인터뷰 44

04 “예술가는 마법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 마술을 부리는 거지요.”
룰루랄라예술협동조합 인터뷰 56

05 “시골의 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함께 먹을거리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진부서당 훈장님 인터뷰 60

06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사회와 그 이야기를 엮어서
표현해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살판 인터뷰 66

07 “표정이 얼마나 즐거운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신기해하고 있는지를 사진으로 보여 주고 싶었어요.”
오렌지 인터뷰 74

08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중요하다...
성미산마을이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또치 인터뷰 86

09 “도시공간에서 예술,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생명...
공동체 도심 마을에서 활력을 주기 위해 집 주변 계단을 재발견”
풀 인터뷰 89

P A R T 0 1

계단마실단

인터뷰와 평가회

계단마실단 03



계단마실단원, 너를 얘기해 봐

베짱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말해달라.

제일 어려운 거다.

성미어린이집에서 말고 있는 건 뭔가?

6~7세 방모임에서 서기 말고 있다. 아이가 둘인데 큰애는 성서초에 다니고 있다.

마을살이에서 좋은 게 있다면?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공감대인지는 모르겠으나 편안한 공감대다. 생협이나 이런 게 잘돼 있어서 좋다. 안 좋은 거는 마을사람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정체성의 혼란이 있다. 일명 반쪽이. (^)

계단마실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느리’가 전화해서 같이하게 됐다. 사전 작업으로 ‘야호’가 밀밥을 깔았다. ‘느리’라는 사람이 마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느리가 뭔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어렵더라.’고 미리 얘기 들은 게 있었다.

계단마실에서 기억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계단이 떠오른다. 공간의 기억이다. 평면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가 보이고 위에서 아래가 보이는.

내년에도 계단마실단을 할 건가?

그렇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많이 와주세요~’ 아니면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거. 진부하고 식상한 말이지만 넣어 달라.

민들레

나를 소개한다면?

하하하하. 옛날에 3행시도 짓고 그랬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을 잘 못한다.

계단마실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별별똥 운영위원이니까. 너무 재미없는 답인가. 재밌을 거 같아서 참여했다.

계단마실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하는 동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창극이라고 해야 하나.

살판에서 심봉사 참하고 설장고 치고 했던 공연을 말하나?

그렇다. 그게 접하기 쉽지 않다. 텔레비전에서나 보고 바로 눈앞에서 접하지 못했던 터라 관객이랑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게 좋았다.

내년 계단마실단 참여의사는?

할 의향은 있는데 할 수 있을까. 기금이 필요하다. 공연료도 지불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구체적 걱정이 든다.

계단마실단에서 제일 고생한 한 명을 꼽으라면?

풀이다. 사업을 신청한 직접 주체자의 언급이 좀 그렇다면 홍반장.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외 더 모셔오려고 애썼다.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을에 행사가 많다. 성인식, 운동회, 반백잔치,... 또 다른 마을의 또 하나 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물건 사는 거야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하지만 특색 있는 계단마실 행사를 못하게 되면 아쉽다.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런가. (^)

폴

나를 소개한다면?

알아서 소개시켜 달라. (눈이 크다, 마을에서 골목문화를 살리고 싶어 한다, 남편인 ‘짱돌’과 같이 부부 공공미술가, 틀에 박힌 것보다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걸 추구한다, 성서초 삼거리에 ‘예술놀이터 별별똥’을 운영하고 있다.)

계단마실에서 가장 보람 컸던 것은?

어렵다.

그럼 좋았던 것은?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난 거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은 거다.

계단마실의 첫 단추와도 같았던 생각은?

도시 유휴공간, 비어 있는 곳에 대한 생각이다. 골목이든 동네 여기저기서 놓고 싶었다. 우리 집 뒤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여기서!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집 앞 공간의 재발견.

작년 사람과마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때 생각도 골목문화 활성화 몫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갖고 있는 생각은?

내부나 땅이 아닌, 밖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거다.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폼팔이계단 ‘느리’의 발마사지. 느리가 커다란 통에 물을 한가득 받고 대야를 준비해 기다렸지만 아무도 양말을 벗고 발을 내맡기지 않았다. 오히려 한눈파는 사이 아이들이 통을 기울여 물이 계단에 흘러 사람들 피신하고 난리가 났었다. (^^)

내년 계단마실 참여의사는?

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한라봉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렵다.

뭐라고 소개하고 싶은지?

마을에 산 지 5년. 여덟 살 아이 키우는 엄마. 나이는 마흔 하나. 마흔줄이지만 만으로 하면 내년에도 마흔 하나다. 앞으로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5년을 살았구나. 그동안 행복했던 기억은?

어렵다... ‘비자루’랑 신혼여행 간 거?

(^^) 아니 마을살이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묻은 거다.

어린이집 조합 활동하며 같은 부모들이랑 놀았던 거다.

가장 힘들고 슬펐던 것은?

2011년 성미산어린이집에서 같은 방 부모들이 탈퇴하고 헤어지고 했던 거다.

과정을 통해 성장한 게 있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는 어떤 생물처럼 자라고 성장하는 거라는 깨달음이 있다. 시간이 지나니 큰 상처였지만 한편으론 떠나간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계단마실단 참여 계기는?

‘민들레’가 같이 하자고 꼬셔서 하게 됐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다.

계단마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쟁반이랑 룰루랄라예술협동조합이 만들었던 화이트아 요리다. 개인적으로 타로카드를 뽑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년에도 계단마실단 참여 할 건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하겠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2015년에는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홍반장

스스로를 소개한다면?

성산동 여느 주부를 능가하는, 남자 살림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내가 간판이 많다. 1통 통장, 새마을부녀회 총무, 성산1동 자원봉사캠프장, 어르신들 돌보는 성산1동 복지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에겐 마법사로 불리고, 동네 아줌마들에게는 수다 친구다.

나이는 마흔한 살. 아들 둘이 있는데 아홉 살 첫째는 홈스쿨링을 하고, 일곱 살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둘째도 취학 시기에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할 거다.

홈스쿨링이라니. 아이가 주로 뭘 하나?

엄마랑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른 엄마들하고 팀을 이뤄 일주일에 두 번 만나 전시회나 공연도 다니고 같이 공부도 한다.

계단마실단의 참여 계기는?

동네에서 수다를 떨던 중 우연찮게 ‘폴’을 만나 권유받았다. 참여해서 즐겁고 유쾌했다. 지역주민들과 더 가까워져서 좋았고. 모르던 사람들과도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각종 공연. 그중에서도 마지막 날의 마임과 ‘노래하는나들’의 공연.

내년 계단마실단 참여의사는?

하면 할 수 있는데 장담은 할 수 없다. 말은 일이 늘어나고 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언제 모여요?” (^) 올해 마무리로 계단마실 자료집 내느라 분주한 듯하다. 마치고 한번 모여 술 한잔 하자. 히히.

질문자도 답하기. 느리

내가 나를 소개한다면?

내가 나인 게 좋은 사람. 장점은 아프고 힘든 사람에 대한 공감. 단점은 시간과 경제 관념 희박.

어떻게 계단마실단에 참여하게 됐는지?

‘폴’이 말했을 때 이거다 싶어서.

기억에 남는 건?

담당 너머 구경하시다 사과를 사던 할머니. “뭐라도 팔아주고 싶어서.”라시던.

내년 계단마실단 참가는?

모두의 답변에 비추어 빠지면 배신자 될 듯.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름을 제일 좋아했다. 겨울은 추워서 싫었다. 겨울의 끝과 시작에 맞물려 있는 다른 계절도 그닥 좋아하지 못했다. 나이 들며 봄도, 가을도 봄대로 가을대로 그대로 느껴지며 좋아졌다. 근데 겨울은... 언제 좋아하게 될까. 그냥 눈 내리는 추운 겨울 저녁 이런 생각이 든다.





계단마실단의 계단마실 평가회

때_ 2014. 11. 11. 오후 4시

곳_ 작은나무

모인 사람_ 느리, 민들레, 베짖이, 풀, 한라봉 (홍반장은 호구 조사로 바빠서 나오지 못함)

평가록 정리_ 느리

내년에 계단마실 또 할래? 계단마실단 또 할래?

민들레 계단마실단으로 활동하며 치료비로 수익 들어갔다. (웃음) 하지만 올해만으로 끝내기엔 아깝고 아쉽다.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진 못하겠지만 누군가 계속하자고 강력 주장하면 또 참여하겠다.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한라봉 인근 주민들 반응과 의견이 궁금하다.

민들레 계단마실 때 나와 서계시던 할머니 인터뷰를 해보자.

베짖이 모든 일에 주체가 중요하다.

풀 계단마실단 다시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민들레는?

민들레 좋다. 이렇게 아끼자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노는 걸 어디서 만날까 싶다. 소비적이라기보다 묘한~ 그런 게 참 좋다.

한라봉 공간 활용이 좋았다. 계단도 놀이터도. 평지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공간도. 근데 풀의 집이 때마다 너무 망가졌다.

풀 격월이 좋겠다. 3, 6, 9월이나 4, 6, 8월 이렇게. 올해는 선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년 계단마실은 격월 정도로 진행하며 다양한 주체들과 계단마실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쌓이는 지역화폐는 어찌 할까?

느리 되살림가게에서 활동한 지 어언 7년. 백만 두루 장자다. 보통 지역화폐 사용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한다. 우리는 이미 관계가 충분하다. 지역화폐는 우리 안의 결핍보다 이웃들과 소외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로도 고민해 왔다.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마을의 상근자들 부족한 급여 일부를 풍성하게 메워줄 수도 있다. 울림두레생협이나 마포의료생협의원에서 받는 날을 기대한다. 현재 비온뒤숲속약국, 작은나무, 동네책방 개똥이네책놀이터, 린치과, 예본치과 등 가맹점에서 10% 사용 가능하다.

일단은 현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지역화폐 활성화의 앞날을 도모하기로. 내년 계단마실에서도 계속 사용하기로.

농부계단과 부업계단이 풍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풀 농부계단에는 스스로 농사지은 게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지인이 경작한 것을 내놔도 좋은데 품목이 너무 빈약했다.

베짖이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판매 위주인 사람은 더 많이 모이는 곳을 물색할 거다. 계단마실의 색깔과 다르다.

풀 재미로 많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귀찮거나 창피한 일로 생각하는 듯했다.

베짖이 낮선 느낌일 거다. 나 역시도 성미산마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계단마실에 선뜻 뭘 팔러 나오기에는 묘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민들레 몇 푼 번다고, 안 하고 말지 하는 소극적 참여의 마음이 있다. 그냥 가보는 정도, 좀 사보는 정도, 좀 놀다가는 정도.

폴 그럼 내년에도 똑같지 않을까.

느리 물이 끓고 뜬이 들어야 밥이 된다. 올해는 마음의 준비 기간이라고 본다.

폴 연남동 ‘따뜻한 남쪽’ 행사는 격월 진행으로 2년차를 맞이했다.

민들레 사고파는 거밖에 없더라. 여기 마을은 뭐 있으면 자기 집에서 먹고, 친한 사람 나눠주고 해서 파는 분위기는 안 맞는다.

베짱이 품팔이계단처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색이 계단마실에 있다.

느리 권하지 않았는데도 마포세월공감에서도 결합했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질 거다.

민들레 주위에서 끊임없이 얘기는 나오더라. ‘우리 뭐 해볼까?’하는.

내년 계단마실 역시 사고파는 분위기의 활성화는 어려울 수도. 하지만 독특한 계단마실만의 색깔과 향기는 더 진해질 듯.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은 성공했을까?

폴 민들레와 같이 성산1동주민센터, 룰루랄라예술협동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마포의료생협의원, 문턱없는밥집, 살판, 오방놀이터, 망원시장상인회, 공간 민들레, 키다리아저씨, 동네책방 개똥이네책놀이터, 성미산학교, 마포에프엠, 민중의집, 성미산밥상, 작은나무카페, 와글와글도서관 등에 리플릿을 두리 돌아다녔다.

베짱이 다양한 주민과 예술가를 응축해서 만날 수 있었다.

느리 나는 룰루랄라예술협동조합의 예술가들이 만나절이나 시간을 내고 수익도 못 내고, 의미도 못 찾으면 어찌지 걱정했다. 즐겁게 참여하며 계단을 풍성하게 해줘서 고맷다.

민들레 나도 룰루랄라예술협동조합을 성미산학교 예술가 수위 프로젝트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학교 밖에서 같이해서 좋았다.

한라봉 어르신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었다. 마포희망나눔 어르신

이 두 분 오셨을 때 마침 느리, 마음, 신비 등 충분히 잘 아는 사람들,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아쉬웠다. 행사 마치고 때까지 모셔다 드렸더라면 좋았겠다.

느리 주위 홍보를 고려해서 동장님과 총무님 통해 떡과 초대장도 돌리고, 민원을 고려해서 앰프와 마이크 사용을 자제했다. 네 번째 행사부터 마이크를 사용했다. 늘 행사를 하는 메인 장소로 오라고 청하는 게 아니라 공간 이동을 해서 찾아간 것도 의미 있었다.

민들레 다른 사람들의 아쉬운 점, 좋은 점을 들어보면 좋겠다.

첫 술에 배부를까.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의 시작이었다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을살이에서 의미는? 내년 계단마실단은 어떻게?

느리 마을의 경계가 높다면 낮추고, 좁다면 넓히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본다.

한라봉 그동안 차려진 밥상에 손님처럼 먹으려만 갔다면, 비록 중간에 결합하긴 했지만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

민들레 좋았다. 어디 가서 만나기 쉽지 않은 자리다.

베짱이 지인을 적극적으로 청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더 적극적으로 맞이하면 좋았겠다.

폴 스텝 열 명이 지인 열 명을 데려오는 방식. (웃음)

한라봉 10대 청소년도 준비부터 결합하면 좋겠다. 공간민들레 등에 연락해서.

폴 8월에 몰라계단에 참여한 청소년도 있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이나 소행주2호 특집 등 독립생활자들에게 권유해도 좋겠다.

보람 있었다. ‘젊은 피’를 영입해서 준비부터 같이 하는 것으로.

힘들거나 아쉬웠던 점은?

민들레 농부계단에 내놓을 깨를 볶을 때 힘들었다. 안 해본 일이었다.

풀 잡티를 다 골라내느라 그랬다.

민들레 성격이라 어쩔 수 없다.

느리 민들레의 성격이 이상한 걸로 정리하자.

한라봉 베틀고 있었는데 타로카드를 볼 시간이 없었다. 다음엔 꼭 보고 싶다.

풀 7월 첫 계단마실 때는 만장도 없었다. 콘셉트가 '주섬주섬' 활용하는 거였다.

1차, 2차 차수가 깊어지며 하나하나 만들어졌다. '날으는쟁반'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날으는쟁반'을 다시 쓰기 위해서라도 계단마실을 내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계단마실은 어떤 모습?

한라봉 연령대를 확장하자. 학교 밖 청소년들과도 같이 하고.

민들레 다양한 공연 기획을 해보자. 색다른 공연.

베짱이 색깔과 주제가 있는. '여기 가면 이런 거'라고 도드라지는. 지역화폐 두루와 딱 떨어지는 품팔이계단으로.

한라봉 베틀시장은 많이 생겼다. 차별성과 특색 있는 계단마실로.

풀 쟁반에 가득한 먹을거리. 뱀술, 개구리 뒷다리 이런 식의. (웃음)

느리 준비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일이 아닌 설레고 즐거운, 그런.

한라봉 전에 풀이 연애하는 기분으로 설렌다고 말했다.

풀 예상치 못한, 별 인간, 별 먹을거리, 별 볼거리, 별 놀거리가 다 있는. '여기서 이런 것도 하네?' 싶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계단마실로.

일이 아닌 놀이로, 연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PART 02

INTERVIEW



01 “마을에 힘든 점이 있을 때 이를 푸는 방식은 늘 ‘사람들이고’, ‘협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활동가 1세대 느리.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느리’란 별칭만은 왕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을의 전설’로 불리는 그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느리’는 어떤 숨은 의미가 있나요?

‘느리다’와 ‘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제 행동이나 말이 느린 데서 온 별칭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에 빛나는 무언가를 늘 간직하고 살고 싶다는 의미기도 하죠. 2004년부터 느리로 불렸으니 어느덧 10년이 됐네요.

계단마실이 끝난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뭘 딱히 계획해서라기보다 어떤 것은 의미가 있어서, 어떤 것은 재미가 있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요. 성미산문화협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워낙에 힘든 시작이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업의 후원이나 정부의 참여도 거론되었는데 시작과 달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빠진 상태죠. 하지만 마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을 때 이를 푸는 방식은 늘 ‘사람들이고’, ‘협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 기대기 전에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 종자돈을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처음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계단마실에는 어떤 계기로, 어떤 코너를 담당하셨나요?

처음에는 계단마실단으로 참여했어요. 풀과 함께 계단마실을 기획하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돕는 게 제 역할이에요. 1회부터 4회까지 함께했습니다. 품팔이계단은 자신이 갖고 있는 ‘품’을 나눠보자는 취지로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계를 제작해서 물건도 배달하고, 아이들도 태워보자는 것도 제안했는데 이것은 ‘날으는 쟁반’으로 변형되어 실행되었어요. 제가 진행한 코너는 ‘아로마 손 마사지’ 코너로 품팔이 계단을 담당했는데, 나름 성공적인 코너였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누가 이 나이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손을 어루만질 수 있겠어요. (웃음)

앞으로도 저는 품팔이계단을 할 예정이에요. 다음에는 더 특별한, 더 인간적인 코너가 준비될 예정이니 기대하세요. :-)

1회부터 4회까지 많은 코너들이 진행됐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코너가 어떤가요?

손끝계단이 없어진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손끝계단에 가지고 온 제품들은 그분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완성한 제품이에요. 사실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단마실을 온 사람들은 복고적인, 전통시장에 온 듯한 느낌으로 가벼운 주머니 가벼운 마음으로 소박하게 옵니다. 그러자니 계단마실 안에서도 가격의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부계단도 마찬가지로 손끝계단도 계단마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나 소비문화가 정착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꿈꾸는 마을, 그리고 축제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른바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생협이나 공동육아 조합원들이 주가 되는 축제를 좀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마을축제’로 바꾸고 싶었어요. 계단마실을 한 40개의 계단도 그래서 섭외가 된 거예요. 그곳은 계단마실의 총책임자 ‘폴’과 ‘짱돌’의 집 근처인데 1차에서 4차의 계단마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집은 어린이들의 놀이터 그리고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개방되었어요. 그들의 노력과 적극성이 없었다면 계단마실은 힘들었을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 폴과 그들의 가족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시장에서 지역화폐 활용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효용성은?

지역화폐 두루가 마을에 도입된 지는 오래됐지만 기간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마실에서 두루를 사용해 보자고 건의했지요. 두루가 돈처럼 사

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떠안게 돼요. ‘대전한밭레츠’란 곳을 갔을 때 조의금을 두루로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사실, 조의금으로 5만 두루를 내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곳에서는 그만큼 지역화폐가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사람과마을’에는 상근자가 없어요. 기관 재정이 어렵기 때문인데, ‘사람과마을’에 상근자를 두고 급여를 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은 회비를 주고 부족한 부분을 두루로 준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그러려면 활동가가 마을에서 두루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야겠죠.

15년, 계단마실에게 혹은 마을축제에게 거는 기대.

앞으로의 모든 축제가 ‘여럿이 함께 하는 축제’이길 바라요. 돈도 있고 의식 있는 소수의 축제가 아니고 주민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제, 성미산마을을 벗어난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한다’는 기준에서 계단마실이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실패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첫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계단마실도 처음에는 우리들의 잔치였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부터는 부녀회 총무도 함께하고, 동센터도 찾아가고 설명해서 후원도 받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면 점점 더 즐거워지고, 힘겨운 부분도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동네를 유람중인 한량 아줌마입니다.

02

“이곳은 멋진 사람이 짱이다.
모두 각각의 고유한 멋이 유지되는 동네다.”

계단마실 총감독 짱들을 만나다.

언제 이곳에 왔나?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을 찾아 2012년 마을에 입성했다. 첫째는 종로에서 살아 공동체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고 다음 해 이사를 오면서 마을 커뮤니티에 온전히 들어오게 됐다.

풀과 함께 계단마실단을 꾸리고 있는데, 계단마실은 언제까지 열리는가?

사람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고 공간의 잠재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 다만 지속가능함을 계속 고민한다. 참여단체가 늘어 기획자가 주도하기보단 자생적으로 열리는 것을 기대한다. 미술을 통한 공동체 놀이는 쉽지 않다. 음악은 쉽게 어우러져 놀 수 있는 예술 매체인 반면, 미술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계단마실은 좋은 경험을 사람들에게 준 것 같고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마을 이곳저곳에서 자주 보인다. 뭐하고 노는가?

음악은 쉽게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음악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풍물패 활동을 하고 있고, 조만간 기타 모임에도 나갈 생각이다. 생전 처음 기타를 잡아보지만, 내 손으로 직접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은 욕심에 열심히 할 생각이다.

취미는 뭐가?

따로 없다. 미술이 직업이자 취미다. 워낙에 사람들과 섞여서 별리는 미술 작업을 해 오다 보니 따로 취미를 가질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그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성미산마을에 오고 나서부터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여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중이다.

총각 때야 물불 안 가리고 모든 일에 뛰어들었겠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선

어떤가, 미술가로서 변화된 점이 있나?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지 않다. 모두가 피부 속에 새겨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일상의 공동체는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개념이어야 한다. 우리의 기억 속엔 좋지 못한 공동체 경험들이 있다. 이유는 다양성이 섞여있지 않아서겠고, 정치적 공동체나 이익을 위한 공동체여서 그럴 것이다. 이익이 생기고 나면, 정치적 변화를 겪고 나면, 그러한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고 만다. 한국 사회에서 일상의 공동체는 깨진 지 오래다. 우리 사회가 보이는 공동체 와해의 흐름에 작은 금을 내서 틈을 벌이는 작업들을 진행하려 한다.

“공동체 와해의 흐름에 작은 금을 내서 틈을 벌이는 작업들을 진행하려 해”

마을에 오자마자 대형유통업체 입점 반대를 위한 작업을 했다고 들었다.

망원시장 살리기 운동의 일환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중 촛불시장을 기획하였다. 투쟁의 숭고함을 버리고 재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촛불시장 작업 당시 시장 상인들과 가게 물건을 이용한 오브제 작업을 진행했다. 자신을 표현하고 가게를 표현하는 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절실함이 묻어나왔고 눈물을 흘리는 상인들도 많았다. 기획자 중심의 작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함께 작업을 진행했던 열정적인 왕두부의 모습도 기억난다. 그의 순수함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미술가로의 모습이 참으로 액티비티하다.

추구하는 게 액티비즘 미술이다. (웃음) 미술관에 갇힌 미술은 하고 싶지 않다. 나 자신도 미술관에 못 간 지 오래됐다. 그곳은 지적 유희를 위한 공간이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나는 나대로 거리와 골목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할 뿐이다.

성미산마을의 대해 개인적인 정의를 내려달라.

이곳은 멋있는 사람이 짱이다. 서로 비교경쟁하지 않으니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마을에 멋있는 사람이 많다. 일 잘해서 멋있는 사람도 있고 운동 잘해서 멋있는 사람, 노래 잘해서 멋있는 사람 등등... 모두 각각의 고유한 멋이 유지되는 동네라고 생각한다. 나도 좀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곤 했는데, 올 한해 동네 활동 뜸하다 보니 요즘은 존재가 희미해졌다. (웃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다시 인기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남과 비교를 안 하고 살 순 없잖은가?

비교는 자기 혼자서 하면 된다. 자기 개발을 위한 비교는 스스로에게 약이 되지만, 그것을 전면에 드러내면 천박해진다. 다만,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살이의 핵심은 차이를 멋지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성미산마을에 살 건가?

늙어서까지 쭉 살 거다. 그것과 더불어 도시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시골의 장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마을의 선배들이 귀촌귀농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좀 다른 모습으로 이 마을에서 늙고 싶다. 아들이 크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고민할 것이다. 대부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곳에 와서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마치면, 마을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을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 마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하고 생산적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생산의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마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하고 생산적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다면?

아직 구체성을 찾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건 이 마을을 안 떠난다는 조건으로 상상을 해야 한다.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어떻게 생산성을 고민할 수 있겠나. 일단은 쭉욱 눌러 살 생각을 하면서 함께 고민해 볼 문제다. 두레생협과는 좀 다른 먹을거리 생협을 꾸릴 생각도 한다. 관광지처럼 변하고 있는 동네의 모습에서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건 생산의 힘을 갖기 위한 노력을 늘여서까지 계속할 것이다.

2015년에 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일단 계단마실의 운영에 대해 여러 단체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 '방' 개념에서 '밖으로' 개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골목으로... 광장으로... 거리로... 말이다. 외로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야 서로 만날 수 있지 않은가? 기웃거리다 만날 수도 있고, 우연적 만남도 밖으로 나와야만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내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함께하는 주택'의 이사진으로서의 활동도 예정돼 있다. 지향하는 지점이 같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이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나는 어디까지나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들 빠듯한 살림으로 운영되지 않나. 입주자 역시 마찬가지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많이 제시할 생각이다. 또한 별별똥을 통해 재미난 작업을 많이 기획할 생각이다. 기대해 달라.

모르면 용감하고 알면 겸손해진다. 찡돌을 자세히 알고 나서 겸손해졌다. 오래 전부터 내 삶의 터전을 누군가 대신 고민해주고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 겸손하지 않으면 무식한 거다. 세상은 빠르고 우리는 그 빠름을 욕망한다. 그러면서 인

정받기를 갈망한다. 남들에게 추앙을 받으려는 우리의 욕심은 늦겨울 얼음판 위에 서있는 형국과 같다. 겨울이 지속된다면 상관없지만 세상에 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겨울이 끝나기 전 그 얼음판에서 벗어나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만끽해 보자.

더 낮은 곳으로 향하면서 더 넓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니 그가 가는 길 뒤에서라도 등판을 밀어주고 싶다. 능력이 된다면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발걸음을 맞추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이 불러온 경비원 전원 해고라는 기함을 토할 뉴스를 보고 나서 무척이나 괴로웠다. 어느 편에 서있건 우리의 또 다른 얼굴들이다. 그 얼굴은 상처로 얼룩져있고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돈을 권 손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질감 속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연대 역시 필요한 법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아픔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연민과 동정은 사사로운 게 아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슬퍼해야 한다. 겨우 그것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혁명적인 숙제다. 나부터 시급한 숙제를 열심히 할 생각이다. 찡돌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조아저씨

영화감독 데뷔를 준비한 지 어언 십 년. 현재는 시나리오와 드라마 작가로 활동 중.



03 “애들을 위해 뭘 만들고 준비한다기보다는 어른 넷이 만나서, 마치 애들이 레고 조립하듯이 같이 논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어른들이 ‘놀자’고 작당했다. 40층계 꼭대기 외주목 놀이터에서 펼쳐졌던 놀이계단을 기억하는가. 온갖 아이디어 물놀이에 박스동굴, 엉터리 캠핑장까지 아이들만의 놀이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1~4차 놀이계단 준비과정에 모두 참여한 당나귀로부터 계단에서 ‘썸 놀아본’ 얘기를 들어보았다.

성미산마을에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들었지만 이런저런 책모임에 이어 계단마실에서까지 존재감을 팍팍 드러내고 계신데요, 아직 당나귀를 잘 모르는 이웃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존재감 전혀 없어요. 열심히 주도하시는 분들 도와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체질적으로 참모형이라 좋아하는 사람이나 재미있는 일에 스템으로 참여하는 것 좋아합니다.

5년 전부터 대안학교들을 알아보다 성미산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학교설명회, 소행주 등을 여러 번 오가다 보니 정감이 있는 것 같구, 대안학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모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작년 추석 때 성산동 개똥이네하고 왕소금 한의원 들어설 곳 사이에 조그만 화단이 있는 빌라로 이사 왔습니다.

당나귀라는 별명처럼 몸이 전 재산인 노동자입니다. 특허법인 전산실에서 프로그래머로 열심히 손가락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서초등학교와 개똥이네책놀이터(방과후 프로그램) 다니는 3학년 상우, 2학년 상민 남자아이 2명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와이프는 아직 별명이 없어요. 제 마음대로 별명을 지을 수 있다면 ‘라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큼하게 이쁘거든요(웃음). 별명이 없다 보니 지난번 초등학교 교학년 방과 후 예비모임에서 좀 에로틱한 ‘당나귀 부인’으로 호명되어 둘 다 어색했어요. 별명이 시급합니다.

1차부터 4차 놀이계단에 당나귀를 포함 여러 분들이 품을 내주신 덕에 어른도 아이들도 즐겁고 신나는 한 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주민으로서 감사드



려요. 놀이계단은 특히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위트가 넘치는 놀이판으로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놀이계단에 참여하게 되신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으신지요?

계단마실은 이런저런 책모임 카톡방에 짱돌이 글을 올려서 알게 되었고요. 놀이계단에서 뭘 만든다고 해서 재미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공사하다 남거나 버려진 나무들을 모아서 소소한 생활물건 만드는 걸 좋아해요. 가구라고 하기에는 허접한 세탁세제 받침대, 프라이팬 거치대, 선반 받침대, 침대용 책꽂이 같은 것들... 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칠하는 것 좋아합니다. 만듦질을 잘은 못해도 재밌어해서 계단마실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1, 2, 3, 4차 놀이계단을 간략히 소개해주시겠어요?

처음엔 모터와 호스관으로 분수를 만들었던 엉터리 워터월드, 두 번째는 그냥 큰 고무 다라이에 물 받아서 하는 물놀이였고 세 번째는 박스로 동굴/터널 같은 것을 만들어 놀았어요. 1차 놀이계단은 작년에 마을에서 했던 거라 거의 준비가 돼있었구요. 세 번째 동굴박스는 두 번째 놀이계단을 준비하다가 다음번에 여기서 ‘공간’을 꾸미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도해봤어요. 4차는 화덕을 만들어 이것저것 구워먹는 엉터리 캠핑장을 준비해봤어요.

3차 놀이계단의 특색이 있다면?

1, 2차 놀이계단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놀았다면 3차는 아이들이 직접 주도했다는 게 가장 달라요. 만드는 거, 노는 거, 부수는 거, 치우는 것까지 다 아이들이 했지요. 어린 아이들부터 4, 5학년까지 골고루 참여했어요. 처음에 박스동굴을 만들면서도 만들면 쓰레기 될 텐데, 금방 없어질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부수고 치우는 과정도 아주 재밌는 놀이가 되더라고요. 용달차에 부서진 박스를 실으면서 아이들이 그 위에서 또 뛰어놀며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러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뜻밖에 부수고 치우는 과정도 아주 재밌는 놀이가 되더라고요”

4차 놀이계단에서는 당나귀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늦게 계단마실에 도착했는데 이미 아이들이 군고구마를 들고 맛있게 먹고 있던데요, 놀이계단에서 구운 고구마 맞죠? 외주목 놀이터에서의 4차 놀이계단에 대해 들려주세요.

4차 놀이계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쟁돌과 생각이 비슷했어요! 가을이다, 출다, 따듯한 거 먹고 싶다, 놀이 중 최고는 불놀이, 고구마 철이다, 요즘 캠핑이 유행이다 등 하는 생각들이 모여서 엉터리 캠핑장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먹 여러 개를 달아서 아이들이 영겨서 놀 수 있게 하고, 작지만 텐트도 하나 치고, 놀이터에 모래를 파고 벽돌로 화덕을 만들어서 고구마, 오징어 등을 구워서 나누어 주면 아이들이 놀다가 먹어보고, 주변에 놓아둔 여분의 벽돌로 자신들의 화덕을 만들면서 놀지 않을까 기대하며 진행했어요.

고구마, 오징어, 밤의 인기는 최고였어요. 공짜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구마 안 먹는다면 아이가 맛을 보더니 화덕 주변에서 4개나 연속 먹어서 귀여웠어요. 따듯한 화덕 근처에서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맥주에 오징어 먹는 것도 좋았어요.

해먹도 따듯한 오후 가을 햇살과 어울리게 분주히 흔들흔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화덕은 아이들보다 어른남자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 이런 걸 만들다니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새롭긴 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며 힘든 점은 없었나요?

힘든 점은 없었는데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들은 있었죠. 바로 아이들의 안전 문제예요. 첫 번째 계단마실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여름인데도 비가 오니까 추워서 물놀이 하는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3차 때 박스 만들 때는 아이들이 커터나 글루건을 사용하니까 행여 다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어요. 막상 해보니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무 안전을 우려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하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들의 놀이에는 뭔가 크고 웅장하고 있어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도 느꼈어요. 박스도 어른에게는 조그맣고 보잘것없지만 아이들이 놀기엔 딱 좋더라고요.

놀이계단 함께하시며 느낀 점은?

쟁돌이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노는 거죠.”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애들을 위해 뭘 만들고 준비한다기보다는 어른 뱃이 만나서, 마치 애들이 레고 조립하듯이 같이 논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이걸 만들면 애들이 재밌겠다보다는 우리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만들며 네 명이 다 의견을 냈어요. 이견 여기에 놓을까 저기에 놔볼까 하며 만들어놓으니까 아이들도 생각보다 재밌어하더군요.

‘놀이’ 혹은 ‘논다’는 게 뭘까요?

일전에 있었던 노명우 교수님의 ‘일상과 놀이’라는 간담회에서 나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도시에서의 관계 맺기에서 특히 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어떤 게 놀이나, 간담회도, 행사 진행도 모두 어른들의 놀이일 수 있다, 놀이라는 게 소비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호혜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프라이스 즉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행위라고 정의하더군요. 특히 서로 시간을 내고 베풀며 서로에게 호의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놀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놀이계단을 준비하며 내가 잘 논 느낌이에요.



지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단마실에 가보니 비로소 동네의 존재를 알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책모임에서 남자들만 보다가 계단마실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보고, “아, 저분들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느꼈다는 것이 사실 많이 공감되었어요. 네 번의 계단마실에 참여해보신 소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아이들과 아주머니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구나! 아 이분이 누구의 부인이구나!”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익히고 아이들과 놀면서 아이들의 특성, 그 집안의 분위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특히 여자아이들)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아이들 입장(시선)에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화려하고 거대한 놀이동산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하고 작게 참여하는 것에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위 질문과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처음 이사 오고 나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저는 가가호호 집 앞에 쌓인 눈을 쓸며 이웃끼리 인사를 나누는 정겨운 풍경을 기대했었다지요. 성미산마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당나귀가 이런 저런 축제며 이벤트 혹은 산책과 같은 소소한 일상을 통해 우리 마을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더불어 ‘내가 바라는 마을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듣고 싶네요.

이사 올 때도 마을에 바라거나 기대한 건 없어요.

‘아이들이 성서 초등학교 잘 적응하고 와이프가 친구들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 안 당하고 와이프는 언젠가 적응할 거라 생각해요.

“느슨한 연대, 게으른 참여” 이런 게 가능한 마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연대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지치지 않게 천천히, 힘 빠지지 않게 느리



게, 귀찮지 않게 하나씩, 저도 적응중입니다. 다행히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도 사 고가 열린 분들이 많아서 크게 거부감 없이(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어서 오히려 당 항) 다가갈 수 있어서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이 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니... 동질감 팍 드네요. 친하게 지내요. (웃음)

“누가 저렇게 노래 잘해?” 물어보면 옆에서
밤 까먹던 꼬마가 “우리 엄마예요” 하는 분위기

계단마실에서는 놀이계단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베틀장터나 공연, 품팔이 등 재미있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는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 있으세요? 누구 의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스쳐지나갈 법하지만 눈에 띄었던 이웃의 사소한 모습이라든가, 누구의 베틀에서 큰 것을 득템하신 경험 등등 말씀해주세요. 4차 계단마실 공연 보고 놀랐어요. 노래나 공연 수준이 높고 느낌~ 있더라고요. 문화 예술인의 마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누가 저렇게 노래 잘해?” 물어보 면 옆에서 밤 까먹던 꼬마가 “우리 엄마예요” 하는 분위기...

계단마실 전반에 대하여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세요.

계단마실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어서 좋게 보았구요.

일면식 없는 지역주민이 30분 정도는 머물 수 있는 규모나 볼거리 등이 필요한 것 같구요.

지역 행사와 일정을 맞추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마을 한마당 같은 행사와 연 관 지어서 진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외연을 확장해서 동사무소 옆 계단 - 성서중학교 운동장 - 성서중학교 후문 - 계단마실 진행장소까지 이어지는 어떤 행사가 되어도 좋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위해 뭘 준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놀이계단’을 통해 본인이 잘 논 느 낄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삶의 유희를 발 견하고 충만감을 느끼게 된다는 측면에서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그보다 더 좋 은 ‘놀이’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놀이’가 무엇인가 나름의 정의를 말씀하시 다가 ‘호의은행’ 이야기를 하셨지요. 놀이에 대한 당나귀의 생각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호의은행’은 어른에게 있어 놀이라는 게 무언지 정의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지 요. 호의은행이란 파울로 코엘료의 《오자히르》에 나오는 말이에요. ‘언젠가 도움 이 될 사람에게 인맥이라는 예금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나중에 이에 대한 대가를 요 구하는 인간관계’라는 뜻인데요. 저는 놀이를 “돈이 아니라 바로 그 ‘호의(명예)’를 목적으로 상대방들과 나누는 인간관계”라고 정의하고 싶었어요. 소설에서는 부정 적인 의미로 쓰여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놀이도 있으니까요. 마을에 살 다 보면 언젠가 지도 하고 싶은 모임이나 행사나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누군가에 게 부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놀자고.

사과

성산동 살아요. 애 셋 딸린 평범 아줌마. 열매의 향기로운 단단함이 좋아서 별명은 사과.



04

“예술가는 마법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
마술을 부리는 거지요.”

부업계단에서 멕시코 아낙으로 변신해 ‘화이타’를 요리한
물루랄라예술협동조합 윈드를 만났다.

동네에서 만나면 어떻게 불러 드려야 할까요?

윈드로 불러주세요. 저는 퍼포먼스와 그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술가로 사는 일을 선택하면서 만든 이름이에요. 사실 풀네임은 바람의 자유로움과 돌같이 단단함을 지닌 예술가이고 싶어 윈드스톤windstone이라 지었는데, 캐나다 친구 녀석이 제 작가명을 듣고는 “어, 그럼 네가 제주네? 하하” 그러지 뭐예요.. 제주의 상징이 돌, 바람, 여자잖아요. :)

주로 하시는 일(작업)은 어떤 것인지요? 작품을 마을에서도 볼 수 있나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벽화 그리기 그리고 퍼포먼스입니다. 성미산학교에 그려진 벽화들은 제가 그린 것이지요. 서울에서는 충무아트홀과 서울과학교등학교, 숨쉬는책공장(출판사),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인권지킴이 사무실) 등에서 제 벽화를 볼 수 있지요. 인천, 구미, 제주에도 있고요. 이탈리아에도, 방글라데시에도 있고요. 헤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빨쭉하네요. 그리고 세월호가 그렇게 된 이후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제정'이 되는 날까지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계단마실에서 ‘음식’을 주제로 선보이신 점 강렬했어요. 예술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활동도 많았을 텐데, ‘음식’을 테마로 가지고 오신 이유는?

‘음식 퍼포먼스’ 제안은 계단마실 진행팀에서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음식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던 적이 있어 흔쾌히 수락했죠. ‘화이타(fajita, 파히타)’라는 멕시코 음식을 선보였죠. 사실 저는 무대가 준비되고 그 무대 안에서 공연을 하며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줄 알고 무대용으로 이야기를 구성해서 준비해 갔는데, 상황은 계단에 앉아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라 그 무대용 이야기는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답에 기회가 되면 무대용으로 음식 퍼포먼스를 보여드리지요. ^^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계시던데 뭐라 말씀하신 건가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 힘’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술가는 마법사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마법사단’이라는 것도 만들었지요. 페이스북에서 ‘마법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있어요. ‘좋아요’ 누르고 우리의 작업들을 봐 주시면 감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마술을 부리는 거지요. 제가 하는 예술이 그러한 힘과 역할을 가졌으면 해요. 무언가 거창하게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웃어도 좋고, ‘오늘 그 퍼포머 봤어? 웃겼지? 재밌었지? 오늘 그 벽화 어땠어? 좋았어?’ 등의 대화를 만들어내고 정말 이불을 덮으며 잠드는 순간 한번쯤 생각해보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전 그것으로 마법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단마실을 바라보는 마음.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을 보고 느껴요. 계단마실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물론 조합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예술조합이라는 생리가 각각의 작업자로서 작업을 하지만 그중 몇을 할애해서 공동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술가라는 것이 아주 개인적이고 개성이 강한지라 ‘함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헤헤). 이상 저는 ‘윈드’였습니다!

이야기

계단마실

농부계단
농부

농부계단
농부

농부계단
농부

농부계단
농부

05
“시골의 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함께 먹을거리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농부계단 ‘훈장님’과 함께. 두메산골에만 있을 법한 ‘훈장님’이 성미산마을에도 계시답니다. 그분의 친필 휘장이 계단마실을 더욱 빛내주었지요. 훈장님께서 즐기신 계단마실은 어떤 모습인지 들어봅니다.

마을에서 만나면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진부서당 훈장, 이민형입니다. 마을에서 잘 보시면 그냥 ‘훈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진부서당은 어떤 곳이고, 요즘은 어디서 무얼 하며 지내시는지?

진부서당은 문화 소통공간입니다. 서당은 스승이 있고, 학동이 있고, 다양한 사람과 계층이 모여 배우고 싶은 것을 함께 알아가는 공간이지요. 인문학이라는 장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누구나 와서 차를 마시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요즘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고전 인문학 강독을 진행하고 있고, 동네책방 ‘개똥이네책놀이터’에서 어린이 서예인문학을 지도중입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매주 오대산 뒷밭에서 산야초와 유기농 먹을거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코너와 (혹시) 다음에 참여하고 싶은 코너는?

이번엔 농부계단에 참여하였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키운 맑은 먹을거리를 소박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뜻이 있었기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 계단마실에 참가한다면, 오대산의 약초들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계절이 봄이라면 고랭지의 산야초와 명이나물이 어떨까요? 명이나물은 여자들의 자궁암, 갑상선암에 그만이지요. 오대산 정상에서 나는 산나물을 따다 보리밥 넣고 쓱쓱 비벼 비빔밥 하나 팔아봐요! 거기에 농부가 정성껏 키운 오이로 오이냉국 한 사발 대접하면... 카-

계단마실의 취장을 손수 써 주셨는데, 어떤 기원이 들어 있나요?

처음 계단마실 진행 소식을 들었을 때, ‘만장기’가 떠올랐어요. 장이 열리면 당연히 시장의 상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걸 몇천 년 전부터 해왔던 우리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게 한번에 써봤습니다. 제 마음 가는대로

쓰게 됐지요. 부족한 솜씨였는데, 봄비의 장식이 곁들여지니 격이 훨씬 높아지더군요. 다행히 글씨와 시장의 개성이 잘 어우러지는 정성이 가득한 손 작품이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4차에 걸친 계단마실, 이웃들의 평가를 들어 본 적 있나요?

저 멀리 오대산에서 들었습니다. (웃음) 앞서 말한 대로 제가 참여한 코너는 ‘농부계단’. 마을 사람들에게 계단마실의 취지를 설명했고,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분들도 기꺼이 당신들이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내주었지요.

농사를 짓다 보니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는지, 또 그 결과물이 시장에서 얼마나 헐값으로 거래되는지 알겠더라고요. 힘들게 지은 농작물이 정당한 값에 판매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물건들은 모두 판매가 되었고 수익금은 모두 제 주인을 찾아갔지요. 계단마실이 잠시 쉬는다는 소식에 많이들 아쉬워 하셨어요.

저는 계단마실을 통해 사람들이 시골의 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함께 먹을거리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서울 사람들은 질 좋은 농산물을 먹어 좋고, 농민들은 농작물에 정당한 값을 받아 좋고... 계단마실을 기획할 때 사람들의 이런 욕구, 정서를 깔면 얼마나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겠어요!

소행주 4호로 진부서당을 옮기는데 새로운 각오 한마디.

2015년 2월, 설 지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전되는 곳은 지금 이곳보다 더 작은 규모예요. 사랑방 느낌이랄까? 아마 서너 명 들어가면 딱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1년 남짓 지내다,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니 주변이 시끄럽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오대산에 가면 따뜻한 봄날, 작은 새들이 ‘ 짹짹’ 아침을 알립니다. 제겐 아이들의 웃음소리, 말 소리가 산새 소리로 들려요.



훈장님이 꿈꾸는 마을, 그리고 축제는 어떤 모습인가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곳, 그곳이 '마을'입니다. '성미산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끼리끼리가 아닌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그러한 마을 말이죠. 우리마을, 건넌마을, 이웃마을 할 것 없이 서로 소통하고 묵은 감정 풀어 주며 화합하는 것이 꿈꾸는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사회 그 이야기를 엮어서 표현해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10월 계단마실에 살판이 와 신명나는 공연을 해주었습니다.
계단마실뿐만 아니라 마을행사가 있을 때 신명나게 해주는 살판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는 성미산마을밥상 옆 건물의 지하 살판에서 했습니다. 살판 대표이신 전통일 사부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재밌게 인터뷰했습니다. 마을이 같이 살아가는 곳으로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또 전통일 사부님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사에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처음이니까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살판 소개랑 사부님 소개를 해주세요.

살판에서 하는 일은, 전통연예가 가지고 있는 형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춤, 소리, 풍물, 극, 굿 예를 들면 제의적인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형식, 형태들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사회와 그 이야기를 엮어서 작품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사는 이야기와 전통연예가 가지고 있는 형식들을 가지고 새롭게 창작 작업을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 거 같아요. 그 외에도 공익적인, 공공적 예술활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일반극장에서 공연하고 그런 형식들을 문화소의 계층, 문화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한테도 하고. 사실 요즘 서울은 많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나누고. 공공적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회를 엮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예술이라는 것은 그냥 예술 창작하는 사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표현되고, 표출되고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회, 현실, 나의 삶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과 나눌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과 공유 할 것이냐, 공감할 것이냐. 그 무기가 우리는 예술적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아가는 작업이 것이죠.

풍물은 어떻게 생활과 사회와 엮일 수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풍물의 역사부터 말하자면, 풍물이 우리나라의 음악 중에, 전통예술 중에 풍물은 민속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기득권(지배층)에서 하는 예술이 아니라 민초들, 민중들이 했던 예술형식이예요. 그분들이 풍물을 치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냥 좋다? 그것도 있지만 그런 행위로 하여금 그 시대에 왕, 양반, 귀족을 풍자하고 변혁해야 하는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풍물이었어요. 풍물굿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그런 것이죠. 영화 <왕의 남자> 보면 탈춤, 줄타기, 극, 풍물하면서 왕, 귀족을 빗대서 풍자했어요. 그런 형식들이 예술적 형식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한 요구들을 풀어냈던 것이예요. 근데 그걸 직접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할 수 있구요. 예술적 표현양식으로 표출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풍물굿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음악적인 것도 있고, 제의적인 것도 있고, 운동적 경향도 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어때요? 성미산학교에서 풍물 활동 해서 알았겠지만, 기간이 짧고, 기본적으로 악기를 배우고 연주밖에 안 하죠. 사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그 안에 그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 극도 할 수 있고 풍물 굿도 그쪽으로 더 가야 한다. 요즘 우리는 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즘 풍물 공연이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 게 있는데. 살판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창작 풍물굿 안에 넣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기, 소리, 극도 넣고. 그리고 살판에서 그런 풍물굿 안에 그런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사부님 소개도 해주세요.

저는 전통일이라고 하구요. 갑자기 딱딱해졌네(하하). 저는 풍물을 시작한 지는 만 22년 됐어요, 1992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마흔셋이예요. 살판에 들어온 건, 199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만 18년 됐어요. 그동안 살판에서 창작공연 활동, 교육활동 하다가 작년부터 살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쌍둥이를 둔 아빠구요.

풍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맨 처음에 시작한 건, 고2 때 풍물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아서예요. 제가 다녔던 세화고등학교에는 민속반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 축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전산반이었어요. 컴퓨터반이 아니라 전산반이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하튼 축제는 3일 동안 했는데 마지막 날 축제가 끝나고 총학생회장이 각 동아리들은 다 모이라고 해서 체육관에 모였어요. 그 학교가 사립학교예요. 거기에 있었던 그 교장, 교감이 오기도 하고. 사립고다 보니까 비리가 있었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가만히 있어야겠는가, 알려야 하는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하기로 했죠. 학교 체육관에서 모여서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학교 밖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고 문제의식을 느끼니까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딱 체육관에서 나가자! 했는데 집회에서는 풍물패가 보통 앞에 있잖아요. 명 치면서 학생들을 이끌면서 문을 열고 선두로 나가는데 짜릿하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저거 한번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산반을 그만두고 민속반에 어떻게 들어 갈 수 있냐 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뽑는 기간이 끝나서 다 뽑았다고 하더라. 고3이면 활동을 안 하는데 벌써 고2니까. 그래도 ‘저걸 꼭 해봐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때는 못했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풍물패가 있어서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성미산마을로 오게 된 건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이렇게 알게 됐냐면, 원래 사무실은 목동에 있었어요. 창립은 1991년에 했구요. 만 23년 되었어요. 사무실을 만 12년 정도 운영하다가 2003년도에 합정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4년 활동을 할 때 성미산풍물패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성미산풍물패가 저희한테 와서 풍물을 배웠어요. 그렇게 성미산풍물패, 성미산마을과의 첫 연은 그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임대비가 너무 비싸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전을 할까 하다가... 저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예술 공연단체니까, 대중 그러니까 지역활동을 많이 안 했다. 여기는 성미산마을이라는 공동체, 마을이 있고, 우리가 여기 오면 지역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공연하는 것과 도시 공동체 사람들과 엮이면 재미있겠다. 직접적인 활동은 힘들 수 있으나. 직접적인 건 성미산풍물패가 우리한테 배웠고. 성미산마을이랑 연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지역으로. 맨 처음엔 지역활동을 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살판과 같이 뭐 그냥 재미있겠다 싶어서 마을에서 사무실을 구하게 되었죠.

“시민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계단마실이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 계단마실에서 동네 예술가로 참여를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땐 예술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다양한 지역 내에서 있는 축제가 다양하지는 않았는데. 계단마실 보면서 재미났던 건, 요즘은 큰 페스티벌 같은 거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 페스티벌의 장단점이 또 있어요. 저는 큰 축제도 필요하지만 작은 축제들, 작은 놀이마당들, 작은 소통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도시에서. 동네에서는 소통이 되지만 도시는 안 되니까. 시민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계단마실이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공간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약간 구석진 그런 곳이었는데,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교감·소통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뢰가 왔을 때 흔쾌히 “같이 놀고 싶다.” 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마을과 전통예술의 관계 혹은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풍물 굿이라는 게 그냥 연주만 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도 있었어요. 그걸 민중, 민초들이 했죠. 그 민초들이 마을이 될 수 있고 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 마을에서의 자생적인 모습, 예술적인 모습이 풍물이라고 생각해요. 성미산마을처럼 지역공동체를 꾸리는 거랑 전통연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밀접해요.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전통연에 활동은 안 해요.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축제, 계단마실에서 공연을 하고, 성미산풍물패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하고 있어요. 하튼 예술 단체로서 마을의 지역공동체와 생활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술은 지역이나 생활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을과 살판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성미산풍물패가 있어요. 저희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마을주민이 하나까 의미가 있죠. 또한 이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행동해내는 걸 할 수 있구요. 그런 것들을 살판도 같이 할 수 있고.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미산마을을 바라보는 견해는?

살판이 처음 올 때는 지역활동을 직접적으로 할 계획은 없었는데 이 마을에 와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았어요. 재밌는 건, 한 가지 색깔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모습이 엮일 수 있다는 게 성미산마을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색깔이 어울릴 수 있고, 필요할 땐 또 하나의 색깔을 낼 수 있고 다시 흩어져서 다채로운 색깔을 낼 수도 있는 게 좋은 점인 거 같아요. 살판도 좀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역적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문화예술을 기획해서 재미나게 주민들과 엮어서 놀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그런 엮임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고민 외에도 소소한 좋은 마당도 만들면 좋겠어요.

오선재 윤가야

저희는 마을에서 재미난 일을 벌이고 싶은 성미산학교 10학년 오선재 윤가야입니다.



07

“표정이 얼마나 즐거운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신기해하고 있는지를
사진로 보여 주고 싶었어요.”

계단마실 공식 포토그래퍼 오렌지를 만나다.

마을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오렌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렌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는 느낌이랄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 모르는 사람이야 많죠. 저는 현재 병원에서 사무 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는 큰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 왔어요. 큰애가 성미산학교, 작은아이가 성미산어린이집에 다니서 공동육아를 같이 했어요. 마을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어린이집이나 학교 사람들을 통해서 어울리다가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마을밴드 7013B 드럼과 트 연습하면서 지난번에 공연도 한번 했어요. 마을 노래패 진동에서도 공연 한번 했어요. 마을에서 하는 일은 성미산학교 설립위 이사, 전형위원회 위원장, 마을카페 작은나무 협동조합 운영위원회, 성미산문화협동조합(이하 성문협) 초창기 운영위원이었는데 성문협은 바빠서 도저히 못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몇 개 더하는 것 같긴 한데... 횡으로 종으로 많이 엮여 있지요. 결론적으로 가정에 소홀합니다. (웃음)

1, 2, 4차 계단마실에서 사진 담당을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혹시 사진을 배우셨다가거나 전공이라거나 하셨는지요?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직업으로 할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1994년부터 한 7년 정도는 사진에 빠져서 살았어요. 2006~7년 한겨레신문에서 하는 포토워크숍에 참여했었는데 출판한 사진이 몇 번 상도 받고 하다 보니 나도 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품은 열정을 확 터뜨리거나 마무리하거나 뭔가 한 단계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먹고사는 문제도 있고 또 외부로 많이 다녀야 해서 가족 하교의 문제도 있고. 굳이 전업 안 해도 생활 속에서 사진을 찍고 즐기다가 필요하면 책도 내고 전시도 하면 되겠거니 했더니 이상하게 그때부터 사진을 안 찍게 되더라고요. 마을 와서는 거의 2년 동안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풀이 시간 되면 계단마실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가볍게 들고 다니는 작은 카메라 하나만 들고 나가서 찍게 됐어요.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계단마실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외로 카메라 앵글로 계단마실을 들여다본 소감이 남다를 거 같기도 해요. 계단마실 포토그래퍼로 참여해보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낯선 사람들의 행사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가족들이 참여하는 우리 동네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다큐 식으로 팩트를 담아내려 하기보다는 타코카드가 됐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서건 사과를 집어 들고 깔깔거리는 모습에서건 이 사람이 표정이 얼마나 즐거운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신기해하고 있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마실에 충분히 참여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표정을 생생히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즐기다가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어야 의식하지 않고 찍을 수 있지요.

카메라 파인더로 잡혀진 앵글에 담아내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사람의 삶, 시간, 표정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뭘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각형 안에 담아야 하나 고민하고 보게 되는데요, 그 사각형 안에 내가 담아낼 만한 것들을 내 눈으로 먼저 알아보고 직감하고 가서 찍기 때문에 스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잘 관찰해야 해요. 막상 찍으러 가면 상황이 이미 종료되기도 해서 순간을 포착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오렌지에게 사진이 뭘까요?

글쎄... 일단 카메라는 누구나 가지고 놀기 쉬운 장난감이 아닐까 해요. 다만 다루고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요. 원리도 좀 이해해야 하구요. 사진은 그 결과물로서 결국 내가 본 세상의 한 단면이겠죠. 그것을 내가 굳이 세상에 드러낼 때는 '내가 이런 걸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으니 봐줘.' 라고 세상에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봐주는 사람,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 또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알아온 모든 것들의 총체

적 시선으로 사진을 바라보고 해석하겠지요. 사진에 제목을 달고 텍스트로 해석을 달면 사진은 일방통행이 돼버리거나 ‘아 그랬구나’ 하는 일정한 공감 정도만 하고 끝이죠. 아무것도 없이 사진만 들이밀면 정말 다양한 해석, 상황 설정, 자기의 기억과 경험에 비춘 사연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진은 세상 혹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소통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비단 계단마실뿐 아니라 운동회, 마을 축제 등 여러 분들이 품을 내주셔서 일상 속 즐거운 놀이가 가능한 거라 봅니다. 그러나 한편 공동육아나 대안학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마을’이란 실체에 여전히 다가가기 어렵고 ‘그들만의’ 무엇이든 이미지도 강한 것 같아요. 실제 1, 2, 4차 계단마실 사진에 나타난 얼굴들은 비슷비슷하고 새로운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 이웃, 내 옆집, 위, 아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다 잘 알고 친하게 지낸다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 하나요. 모임을 하면 그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 많은데 가면 나도 ‘뺄뺄’할 거예요. 이 마을에 내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안 맞으면 안 가요. 자기 취향,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한두 사람 있으면 사귀고 관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라 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게 하기 위해 내가 나서서 뭘 해야 하나? 글썽요, 어느 정도는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굳이 더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할 필요 있을까요. 계단마실, 마을운동회도 피곤하면 안 가면 되는 거죠. 많이 나와서 즐거우면 좋겠지만 즐겁지 않는데 나와서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전락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너도 한번 같이해보자 하고 끝 수는 있죠. 그때의 전제조건은 내가 이걸 좋아하고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 거죠. 또 평상시에 서로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 두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긋은 일, 힘든 일에는 나서서 자기 시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배려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것, 그게 마을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위 질문에 이어 오렌지가 바라는 마을의 상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마을이라는 게 어려운 일 혼자 하기 힘든 일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굳이 같이 살 필요 없고 넓은 땅덩이에 나 혼자 농사짓고 살았겠지요. 긋은 일, 힘든 일에는 나서서 자기 시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배려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것, 그게 마을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소박하죠? 근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신 포함 오렌지가 뽑은 계단마실의 MVP는 누구일까요?

어렵네요. 뭐 눈에 제일 많이 띄고 활발했던 건 민들레였는데 그건 그냥 눈에 많이 띄는 거고. (하하) 사실 고생 많이 했겠다 싶은 건 짱돌이지만 문제는 그 양반은 자기 스스로 즐기면서 한 거니까 고생도 아니지요 뭐. 공이 제일 많다 하면 풀이 아닐까요. 풀은 총연출 총감독의 입장에서 이래저래 많이 애쓰고 챙겼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짱돌이 했을 거 같은데 섭외, 연락, 전체적 분위기 조율 등 흐름을 주관하는 소프트웨어는 풀이 하지 않았을까. 요소요소에서 사람들이 풀을 많이 찾거나 의지 했어요.

사진가로서 계단마실 총평을 하자면?

계단마실 장소가 우리들에게 익숙한 곳에 있는 영역에서 벗어난 곳이었어요. 이 동네 사람 다 같이 어울리고 판매하는 것을 지향했을 텐데, 모이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계단 양옆에 집들이 있어 조심스러웠구요. 초반엔 앰프를 못 켜었어요. 계단마실이 지속되고 발전하려면 인근 다른 주민들도 나와서 같이 즐기는 하

나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남동 마을장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
더라고요. 이렇게 역시 공간이 확보되고 홍보가 되니까 사람들이 오는구나 했어요.
계단마실은 단지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먹고, 공연하고... 성격이 애매
모호하기도 한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해 더 많
이 고민되고 얘기되어야겠습니다.

외장하드에 저장된 사진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 계단마실 기억이 새록새록 떠
오르더군요. 찍으신 사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애착을 느끼는 사진이 있
다면 세 컷 정도 골라주세요.

사진 고르기가 쉽지 않네요. 한번에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사진이 있으면 좋는데...
다들 부족해서^^

첫 번째 사진이에요. 계단 전경이 보이고 그 속에서 각자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

습, 즐기거나 웃거나 하는 모습이 계단마실의 모든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해요. 다만
계단마실이 정리될 무렵이라 계단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망설여지는
데 그럼에도 좋은 듯합니다.

두 번째 사진. 계단마실 한 칸에서 벌어졌던 물놀이였는데요. 단독으로는 계단마실
을 보여 주긴 어렵지만 아이들의 웃고 떠드는 즐거운 놀이가 소풍 온 듯한 느낌이어
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어요.





마지막 사진은 계단이라는 특성을 잘 이용한 예술 행위에 대한 장점이 두드러져서
끌렸습니다.

사과



08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중요하다...
성미산마을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계단마실과 도시 일상과 놀이에 대해 또치와 이야기 나누다.

요즘은 주로 '이런저런 책모임'에 얼굴을 보이고 있는 또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09년에 성미산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공동육아하면서 성미산마을과 연을 맺었어요. 지금은 성서초에 다니는 아홉 살 된 첫째와 11개월 된 둘째와 같이 소행주 3호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미산어린이집을 졸업한 요즘은, 공동육아 같이했던 분들과 3년 전에 시작한 마을 책모임 '이런저런'에서 다양한 책과 새로운 마을 분들을 만나며 또 다른 행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별명을 또치로 지은 이유는 뭐예요?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이 부른 별명이었어요. 당시 바리칸으로 머릴 밀고 다녔는데 다리는 길고 머리는 새대가리처럼 작아 타조 같다고 하면서 붙은 별명입니다. 돌리 만화에서 타조왕국 공주로 나오는 조연이죠. 그 당시엔 별로 안 좋아했지요. 마을에 와서 '또치~'라고 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 때문에 금박 입혀진 별명이 됐어요~

공동주택 소행주에 입주하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죠, 어떠세요?

잘 아시겠지만 혼자 문 닫고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느낌이 들게 서로 안부도 묻고 밥도 같이 먹고, 모임이 있으면 모임도 더불어 준비하고 이런 게 우리 어린 시절 분위기였지요. 그런 점에서 소행주는 집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공동살이를 조금씩 배워나가는, 매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같이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집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소행주 입주하기 전에 소행주에 입주하면 기대했던 부분이 충족되는 편이신가요?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사람을 많이 초대하고 그러지도 않아서 단으면 우리 집, 열면 필요한 일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정도로 생각했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리진 않았어요. 뭐 일찌감치 집에 비 안 새고 따뜻하게 지내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같이 밥도 먹고 서로 필요할 때 도움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정도로 생각했지요. 물론, 이런 작은 바람조차도 도시 속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며 단혀 사는 많은 분들에게는 로망일 수도 있겠네요. 성미산 마을에 있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유도 아마 그런 바람 때문이기도 했겠죠. 사실 전에 살던 형태는 거의 혼자살이잖아요, 집은 같은 건물이지만 혼자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였는데, 지금은 약간 변형됐지만 이웃들과 함께 더부살이 한다는 느낌? 뭘 먹다가도 ‘옆집에 이거 줄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큰 차이이죠. 저는 소행주 살기 전후 마을살이 큰 변화가 없어요. 대신 아이는 아주 좋아졌죠. 학교는 없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데다가 여기 저기 골목들을 편하게 누비고 다닌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는 아이를 잘 알고 있는 마을분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 걱정도 덜해요. 전에 살던 테보다는 말이죠.

조합활동이 줄어들고 나서 마을로 들어와서 마을살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많이 편해졌죠. (웃음) 조합 문제며 그 조합 속에서의 사람 간의 관계 문제며 이런 것과 일단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편하구요. 각종 모임이나 회의 같은 것도 없어졌으니까. 근데 또 막상 이 마을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 연을 맺었던 분들이랑 가장 강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가령 주변이 경우도 개똥이네책놀이터를 중심으로 지내고 있구요. 지금도 이따금씩 마실하는 사람들은 공동육아를 같이 했던 엄마 아빠들이고 이분들과 친밀도가 제일 높죠. 그게 없었으면 마을살이도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맨 몸똥이로 왔으면 아마 여기 전혀 적응하지 못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어린이집 활동했던 게 마을살이를 위한 씨앗돈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혜택이 된 것이죠.

“자본에 포위되어 있는 공동체를 스스로, 서로 즐기는 문화로 만든다



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즐긴다는 걸 누린다, 자기가 지불한 만큼 받아가야 하고, 얻어가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계가 있는데...

우리 주변의 일상이 다 그런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품을 내서 즐
긴다는 것을 쉽게 체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서로 일
깨우고 다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봐두면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진 문화가 자연스럽게 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본에 포위되어
있는 공동체를 스스로, 서로 즐기는 문화로 만든다는 게 매우 힘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이죠. 본연의 자체적인 즐거움을 만드는 문화를 만든다는 게 마을의 가장 큰 특징
인 것 같아요.

올해는 세월호 여파로 축제를 못했지만, 작년엔 마을 축제할 때 책모임에서 행
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거였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게 또 책모임 멤버였던 짱들이 기획했던 거예요. 개똥이네책놀이터에서 늘상 하
는 어른들 책모임을 골목으로 옮겨서 마을사람들이랑 같이 책모임을 하면 어떻겠
냐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어, 그래 그렇게 하자” 했는데, 마침 그때 인디언에 관한
책, 《인디언 마을 공화국》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인디언들의 삶의 방
식이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 가운데 화롯불을 놓고 서로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앉아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상징화한 게 소행
주 1호 앞에서 화롯불을 준비해서 막걸리를 돌려가면서 시를 낭송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우리 책모임 시작할 때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그러거
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제의를 보여준 거죠.

이번엔 계단마실도 그 축제를 옮겨 놓은 느낌이 있었어요. 장소를 계단으로 이

동한 축제 그런 느낌이었던거예요. 계단에서 물건도 팔고 했지만 놀이터도 좋았어요. 애들이 골판지로 놀이터를 새로 만들고 또 놀잇감을 만들고 그걸 어른도 같이 즐기고 이리는 게 좋더라구요.

놀이터 만드는 데 저도 잠깐 참가했는데, 놀이터라는 공간이 시소 몇 번 그네 몇 번 이렇게 타고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상상을 하며 모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나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즉흥적으로 ‘이런 것 어때?’ 하고 제안을 하면 ‘어 그거 재미있겠는데’ 하면서 어른들도 준비를 하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구덩이 파서 화로도 놓고 하면서 옛날 뒷동산에서 놀던 기억이 막 따라 나오더라구요. 물론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어 아쉬웠지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놀이터라는 정형화된 공간이 들어서면서 많이 빼앗겼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산에 가거나 공터에 가서도 그때 있는 물건을 가지고 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나마 외주목 놀이터는 모래 놀이터라 여지가 좀 있는데 다른 데는 폭신폭신했던 우레탄 같은 게 깔려 있어서 애들 보고 “아, 너 저기 한번 올라갔다 와, 그리고 그네 타.”

그렇죠. 옷은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전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죠. 안전이라는 이름 하에 말이죠.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짱돌이 기획하는 게 그런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계단도 마찬가지로 늘 주빈이랑 성서중학교에 축구하러 갈 때 계단 앞에 비탈길에 자전거를 매고 가위바위보를 하던 공간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그런 식으로 쓰였던 공간인데 거기에, 사실 계단 풍경도 되게 멋스럽잖아요. 고즈넉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거기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와 같이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런다는 게 재미있는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회의에서 또치 인터뷰에 지난 10월 계단마실단과 이런저런 책모임이 주관 한 저자 간담회 ‘도시 일상과 놀이’ 내용도 담아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

노명우 교수님 강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익명적으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자기만 도덕적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분히 공격 지향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처음부터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게 도시 생활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인데, 그래서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을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성미산마을이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강의하기 전에 마을을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제가 안내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인사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여기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사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마을에서 일정 정도 실현시켜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사회적 자본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있고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있는데, 평소에는 상호작용이 없다가 동일한 이익을 위해 결합하는 것을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아파트 가격 담합을 위한 입주자 모임이라든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졸업장을 기준으로 모이는 동창회라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 모임이나 그런 것들도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에 비해 연계형은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 즉 다양한 취향, 계층, 직업의 사람들이 서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을 말합니다. 아마도 성미산마을의 마을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러한 연계형 사회적 자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노명우 교수는 연계형 자본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결속형 자본도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들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진단하시더라고요.

계단마실 경우도 그런 다양하게 색칠하고 치장하는 사람들, 노란 리본 만드는 사람 등 다양하게, 서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도 모여서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점에서 도시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아닐까도 싶어요.

노명우 선생님과 저자 간담회를 주관한 이런저런 책모임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시작한 지는 3년 되었어요. 처음 네 명이 주도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알음알음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고정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한 열세 분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70회 정도 책모임을 했어요. 각자가 돌아가며 추천한 책을 약 70여 권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셈이죠. 책모임 ‘이런저런’의 장점이라면 무시무시한 출석률이죠. 정말 열심히 책을 읽어오고 결석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참여하죠. 아마도 자신의 속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나누는 곳이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책모임도 일종의 어른들의 ‘놀이’인 거죠.

비행기

마을을 믿고 둘째 낳고 회사까지 그만둔 초보 주부.



09

“도시공간에서 예술,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생명...
공동체 도심 마을에서 활력을 주기 위해
집 주변 계단을 재발견”

계단마실 총감독 풀을 만나다.

8월부터 총 네 번 열린 우리 동네 계단마실 도대체 이런 행사는 누가 어떻게 만들고 준비하는 걸까, 궁금한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계단마실이라는 무대의 커튼 뒤, 실상 계단마실 총감독을 맡고 동분서주한 풀이 있었지요. 일단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신감 있게 ‘예술가’라고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먹고사는 일에 치중하며 살다 보니 순수창작에 몰입했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자신감 없게 ‘예술가’라고 소개해야 할 것 같네요. 20대부터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작업의 소재부터 활동공간까지 먼 곳에서 큰 주제를 찾아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내 삶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주제를 찾아 작업을 하고 있네요. 예술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면서 예전에는 작업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살면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남편 짱돌과 저는 각자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1년 봄부터 ‘디자인얼룩’이라는 그룹 활동을 하고 있죠. 2012년 11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트스페이스 풀에서 ‘디자인얼룩’ 1회 단독전을 열고 미술계에 도심 속 마을예술가로 살고 있다고 알렸죠. ‘모르는 마을’이라는 제목의 그 전시에서 이 지역의 성미산마을 축제, 재래시장, 대형마트 반대 활동을 주제로 한 영상작업과 마을 공간 모형을 심리적으로 재현한 설치작품을 선보였어요. 갤러리 전시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현장예술 활동, 공공미술을 주로 하고 있어요.

‘디자인얼룩’은 시각예술 베이스로 활동을 하면서 상업공간 디자인활동과 공공미술 관련 디자인 작업을 시각예술 작업과 병행합니다. 2013년부터는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위해 오프라인 공간 중심으로 네트워크 영역을 다져보려고 성미산마을이라는 곳에서 생활, 예술, 일의 통합을 시도하며 마을 커뮤니티 스튜디오 ‘예술놀이터 별별똥’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현재 공공미술 시각예술 관련한 작업에 주력하고 계시군요. 그렇





다면 계단마실과 풀의 작품활동(예술활동)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계단마실 판을 벌이게 된 동기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예술은 잉여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생활, 일로 바쁘면 창작욕구가 찾아올 여지가 없지요. 심심할 때, 외로울 때, 놀 게 없을 때 하는 것이 창작이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일상을 꾸려가야 하는 나이에겐 전시가 잡혔을 때,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을 때 창작욕구가 생겨나지요. 계단마실을 만든 이유도 창작욕구가 생겨나도록 나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판을 벌린 것 같아요. 계단마실 판을 벌이게 된 동기가 지극히 개인적이죠? (ㅎㅎ) 창작욕구가 생겨나도록 판을 벌렸는데 4회 계단마실 치르는데 에너지를 다 써서 막상 창작은 잘 못한 것 같아요.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계단마실을 한다면 창작욕구를 좀더 불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동기는 가끔 귀농을 생각하곤 하는데 농촌에서 산다면 예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가정을 하게 돼요. 결론은 할 필요성을 못 느끼며 살겠구나~ 입니다. 계단마실은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라 느껴져요. 자연이라는 생명이 없는 도시공간에서 예술,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느껴보려 하면서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동체라 부르는 도심 마을살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 주변 공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전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차도 다니지 않고 한적한 저희 집 주변 계단을 재발견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 중 ‘예술,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생명’이라는 부분이 와닿습니다. 계단마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돼주었다면 그건 바로 생기 없는 도시의 일상에 다소나마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그런 면에서 계단마실이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특히 내년에도 계단마실이 재개되면 ‘창작욕구’를 불태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내년 계단마실은 어떤 작품으로 탄생하게 될까요? 창작욕구를 어떻게 불태우고 싶



으신지, 올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거나 개선하고 싶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올해 계단마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물론 계단마실단과 함께했지만. 그래서 내년 계단마실에 대한 바람은 제가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잘 이루어지고 저는 계단마실에 좀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계단마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재발견’하는 묘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웬지 서민적이고 그저 ‘불편함’만을 상기시키던 ‘40개 계단’이라는 공간을 재발견했달까요. 그곳 꼭대기에서 바라보이던 석양과 그 외진 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 웃고 떠들거나 오르락내리락하던 마을사람들이 기억에 남네요. 폴, 계단마실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계단’을 마실의 장소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계단’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점도 있었겠고 한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말씀해주세요.

작년 한 달 동안 베트남 여행을 했었는데 베트남 남부 ‘달랏’이라는 곳에 유명한 계단시장이 있더군요. 광장을 계단으로 디자인한 그곳은 옆 중앙시장과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노점이 판을 펼치는 생동감 있는 계단시장이었어요. 그때 계단에서도 이렇게 먹고 놀 수 있구나 알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계단이라는 공간을 발견했다기보다 그런 생각이 무의식중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2014년 서울시 주민제안 사업에 제안서가 돼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외 공공공간이 딱히 마땅한 곳이 없었죠. 작년처럼 차가 다니는 골목에서 판을 또 벌릴 생각은 없었어요.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워낙 커서 차가 다닐 수 없는 빈 터를 찾아 고심하다가 저희 집 뒤편 40계단과 외주목 놀이터를 전용할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계단이어서 좋았던 점은 노천극장처럼 계단 앞 무대가 자연스럽게 마련이 되고 사람들은 층층이 계단에 앉으면 극장좌석이 되더군요. 계단이어서 한계라기보다 불





편했던 점은 자원봉사단, 계단마실단이 준비를 하며 짐을 나르고 옮기는 데 계단이
취약이더군요.

오르락내리락 땀이 비 오듯 쏟아졌던 것 같아요. 계단이라 오르내리며 저를 비
롯한 스템들이 힘들었죠.

“도시 일상 공간에서 장소성을 만들고
이익추구 없이 서로 노는 풍경을 상상하면서
계단마실 판을 벌렸어요.”

계단마실 하면 축제, 놀이, 소통, 마을 등 여러 가지의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폴
이 생각하시는 계단마실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놀이’라고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명우 교수님 초청강연회 자리도 이런저런 책모
임 또치와 함께 마련했지요. ‘도시일상과 놀이’로 강연을 부탁드렸는데 계단마실의
키워드가 바로 ‘도시일상과 놀이’ 라고 생각해요. 도시 일상 공간에서 장소성을 만들
고 이익추구 없이 서로 노는 풍경을 상상하면서 계단마실 판을 벌렸어요.

소식지 자기소개에서 계단마실을 준비하며 가슴이 뛰는 순간이 있었다는 대목
을 봤어요. 폴의 남다른 열정과 예술가적 감수성이 느껴졌는데요, 그 대목에 대
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언제 어떻게 ‘가슴 뛰는’ 순간이 찾아왔는지
요? 한편 그런 순간이 무색해질 만큼 힘들었던 때도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든 점
이 무엇이었나요?

가슴 뛰죠. 오늘 계단마실에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참여 신청서를 썼는데
핑크를 내면 어떻게 하나? 처음 참여한 사람의 열정이나 정성이 느껴질 때도 가슴이
뛰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볼 때도 가슴이 뛰고 계단에서 요리, 미용
실, 화장, 마사지 등 못 할 게 없다는 걸 느낄 때도 뛰고... 그런 맛에 힘들어도 하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때는 비밀입니다. ^^

총 4회의 계단마실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사람이 있으신지요?

너가 공연계단 장비대어 섭의 담당이었는데 전자키보드가 필요해서 어디 구할 곳 없냐고 물었더니 자기 집에도 있고 소행주 1호에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것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와~ 대단하다 생각했었죠. 그러다 전날 좀 이상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컴퓨터 키보드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너는 컴퓨터 키보드 빌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하는지 이상했다고 합니다. 진짜 너가 컴퓨터 키보드를 준비했다면 진혁이 엄마 아씨의 공연은 어떻게 됐을지 정말 웃기더라고요. 실제 전자키보드를 마을극장에서 옮겨왔는데 정말 무거워서 힘들었지요. 세상이나 들기 전에는 몰랐었지요. 전자키보드가 그렇게 무거운지. 무슨 시체 들어있는 판 같더군요. 2회 때는 계단마실 공연계단에 샘플의 가곡노래 반주를 위해 키보드를 샘플 측에서 준비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전자키보드 한번 들어보고 그 무거운 키보드를 준비해 온 조아가 정말 고마웠어요. 어찌되었건 자신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의 어려움을 하나둘씩 알 수 있어 좋았어요.

간단히 계단마실 총평 부탁드립니다.

인근 주민들, 좀더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하려고 40계단에 판을 벌렸죠. 이미 성미산 마을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들이 많지요. 하지만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져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접근이 어렵고 우연적인 만남과 뒤섞임이 어렵지요. 그래서 실외 공간에 판을 벌렸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은 함께하기 어렵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다고 하더군요. “나 빼고 모두 다 친한 것 같아!” 뭐 그런 느낌...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오셔서 공연도 보고 먹을거리도 사고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하면서 반가워하기도 했지요.

계단마실을 하면서 새로운 주민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는데 그래도 첫 회

라서 알려지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내년에도 계단마실을 하게 된다면 좀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좋겠네요.

이 소박한 축제를 위해 힘을 보탠 사람도 적지 않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10월 계단마실로 이 행사도 일단락되었는데요, 앞으로 계단마실 지속 가능성 여부와 지속 가능하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주변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계단마실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이고 계속하자는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도 4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격월로 4, 6, 8, 10월에 한 번씩 한다면 올해 7, 8, 9, 10월 매달 하는 부담도 덜 수 있고 계단마실단이 많아지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요즘 여러 지역에 장터가 많아지고 있더군요. 계단마실은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계단 놀이터면 좋겠어요. 서로의 재능을 놀이처럼 주고받는 품팔이계단이 활성화되고 기금을 받아 예술가들의 공연무대를 무료로 일반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실외 사계절 놀이를 어른들이 작당해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동네 놀이터 계단마실이 되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계단마실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구요? 앞선 오렌지와의 인터뷰에서 계단마실의 MVP가 누구라고 생각되느냐 물었더니 ‘폴’이라고 대답했어요. 폴이 정말 많이 애쓰고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더라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하하~ 하지만 전 계단마실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계단마실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주인공이었지요. ‘놀이’라는 게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되지요. 판을 벌렸지만 같이 노는 사람이 없거나, 구경하는 사람, 홍보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자발적으로 품을 내주며 함께한 사람들 모두에게 전 고마운 마음이에요. 올 한 해 계단마실을 하면서 덕을 쌓은 것

같아요. 내 안에 부족한 덕 말이죠. 계단마실에서 가까운 저희 집을 계단마실이 열리는 날 전면개방하고 사람들이 화장실도 사용하고 저희 집 부엌에서 김치며 음식도 해서 나가고 종료 후 저희 집은 발 디딜 틈 없이 계단마실 물품들로 가득했었죠. 행사 후에는 팔다리가 쭈서서 후유증으로 고생도 했는데 굿관 벌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살면서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사과







Copyright

계단마실단, 예술놀이터 별별똥

기획

예술놀이터 별별똥, 계단마실 기자단

편집

이여진, 김지혜

이 책자는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제안사업 선정 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